

북한 협상모델 분석을 통한 경제협력 실천방안 연구*

- 남북 군사협상 및 개성공단 실무회담 사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Economic Co-operation action by analyzing the North Korea's Military Negotiations
- Focusing on Inter-Korean Military Talks and working level talks abou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

이성춘(Sung-Choon Lee)

조선이공대학교 특전부사관학과 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 | IV. 결 론 |
| II. 북한의 전략문화와 이론적 협상모델 | 참고문헌 |
| III. 군사협상에 대한 협상모델 적용 및 특징 | Abstract |
| IV. 개성공단 실무회담과 협상모델 적용 | |

국문초록

현재 남북관계는 그동안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교류협력의 핵심적인 실무 협상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한 당국간 회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과학의 목적이 사회현상의 설명과 예측에 있다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의 군사대표단으로 구성된 인원들이 북한 군부 대표들과 군사문제를 논의한 군사협상의 대표적인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군사실무회담을 분석해보면 향후 협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본 연구는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행태에 대해 총체적 차원에서 분석, 평가하였다.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제시된 항일유격대 시절 각종 협상을 분석하여 군사협상에 대한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분석틀을 제시하여 김정일시대 군사협상의 행태가 협상모델의 틀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증명 결과를 바탕으로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특성을 활용하여 향후 예상되는 각종 남북회담,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제고 시킬 수 있는 남북 군사회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2013년 김정은시대에 실시되었던 경제분야의 개성공단 실무협상에서도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적용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것은 군사협상의 모델인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이 일반협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북한과의 제반 협상에 대비하고자 함이다. 즉 북한과의 각종 경제협상에 대비한 통상정보의 활용측면과 개성공단 실무협상 분석을 통하여 경제협력 실천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주제어 :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군사실무회담,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 개성공단 실무회담

* 이 논문은 필자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정일시대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 행태"(2013)의 일부를 요약 및 보완, 발전시킨 것이다.

I. 서론

북한은 현존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체제위협 및 심각해진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생존의 중심고리’라고 판단¹⁾하고 대미, 대남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남북 간에는 6·25전쟁 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인해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누적되어 왔으며, 정전체제하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이중적 관계 속에서 군사협상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2000년대 이후 김정일 시대 대표적인 남북 군사협상인 국방장관회담, 장성급 군사회담, 군사 실무회담을 대상으로 북한의 군사협상 행태를 규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많은 남북 협상연구가 진행되어 북한의 협상전략 및 행태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협상사례에 대한 연구는 협상행태 위주로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북한의 협상행태에 대하여 예측 및 해석이 가능했어야 하나 일부 그렇지 못하였다. 협상이 개최될 때마다 북한은 왜 이러한 협상행태를 표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많은 연구 결과에서 북한의 특수성에 기인한 사회주의 협상행태라고 분석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협상이론적 배경과 북한 전략문화 특성을 고려하여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언급된 항일유격대 시절의 담판사례를 분석한 후 북한의 협상모델을 제시하여 김정일 시대 군사 협상행태와 분석하고자 한다. 즉 항일유격대 시절의 협상행태와 김정일 시대 군사 협상행태를 비교하여 협상행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은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남북한 간의 군사협상이고, 시간적 범위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로 설정하였다. 북한의 군사 협상행태 분석틀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담판사례를 분석하여 도출한 후 분석틀 구성 요소의 관련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분석틀 구성요소는 협상관, 협상문화, 협상전략, 협상전술로 구성하고, 내용들은 담판사례 분석 시 도출할 것이며, 이와 같이 도출된 군사 협상행태가 김정일시대 군사협상에서도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²⁾하고자 한다.

1) 고유환, “벼랑끝 협상전술과 북한의 저의”, 『월간 북한』 제294호, 북한연구소, 1996, p. 40.

2) 사이먼(Herbert Alexander Simon)은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인간 합리성의 현실, 즉 제한적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제약과 그 범위는 선형적 또는 본질적이 아니라 경험적이다.”라는 대명제 하에 북한의 군사협상 행태를 분석한다. Herbert Simon, “Human Nature in Politics: The Dialogue of Psychology with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9. No. 2(1985), p. 297.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김정일 시대 군사 협상행태를 분석하면 지금까지 특수성에 기인하여 ‘비합리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군사 협상행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기존의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북한의 전략문화와 연계하여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제시된 담판 사례 중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을 선정하여 김정일 시대 군사 협상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협상행태가 김정일 시대 군사 협상행태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일반 협상분야 즉 개성공단 실무협상에서도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 적용 타당성 검토를 통한 북한과의 군사협상 및 경제협상에 대비하여 대북협상 정책 수립간 협상행태 분석 및 협상 전략수립에 기여하는데 있다. 아울러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군사협상과 연계된 경제협력 실천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북한의 전략문화와 이론적 협상모델

1. 사회주의 및 북한의 협상이론

사회주의 협상의 기저에는 근본적으로 투쟁과 타협의 병행을 강조하는 본질을 지니고 있는 통일전선론이 자리잡고 있다. 즉 협상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협상정의와 김일성의 협상에 대한 인식 등을 고찰해 보았을때 북한은 매우 다루기 어려운 협상 상대이다. 남한 및 서구 국가들과 전반적으로 구별³⁾된다는 점이다.

2. 북한의 전략문화

전략문화⁴⁾는 무력행사 혹은 무력위협 행위와 관련한 한 국가의 전통, 가치, 태도, 행동양

3) “북한은 협상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협상 환경이나 의제를 교묘하게 조작하려고 한다. 물론 다른 나라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만 북한의 다른 약소국에 비해 협상 환경을 변경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구사하고 있으며 또 협상 의제를 자국에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 기술이 비교적 뛰어난 편이다. 그리고 위기 조성 등 벼랑끝 전술을 비롯한 부정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고 협상 상대에 대한 과격적인 대우라는 긍정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김용호, “북한의 대외협상 행태 분석”, 『국제정치논총』제40집 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pp. 305~306.

4) 한편 이강석은 “전략문화란 군사적 작전·기술·조직을 말하기 이전의 개념으로 전쟁수행에 관한 한 지정학적 조건,

식, 관습, 상징, 그리고 환경적응 및 문제해결에 대한 독특한 방식 등의 집합을 의미한다. 전략문화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역사적 경험에 기반을 둔 전략적 선호도를 지니고 있으며, 안보정책은 각 국가 및 지도자들의 철학, 정치, 문화, 인지적 특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전략문화는 상당히 흥미로운 개념이다. “각 국가가 당면한 안보상황과 관련해 정책적 판단(특히 군사력의 사용과 관계된 정책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해당국가 고유의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⁵⁾ 이같은 사항은 설득력이 있는 사항으로 국가의 정책적 판단은 국가의 포괄적 전략(defensive strategy)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접근방법에 문화적 접근방법을 접목함으로써 한 국가의 전략적 행동에 대한 보다 다양한 해석을 하거나 혹은 기존의 이론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행동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의 전략문화와 관련된 연구분야에서는 전략문화를 도출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저작물로 정책결정자들에게 기존의 전략적 사고와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텍스트(Text)⁶⁾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전략문화는 기본적으로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한반도가 겪은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특히 분단이후 한국전쟁의 경험과 주체사상의 도입은 북한의 전략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⁷⁾ 이것은 어느 특정한 문화요소로만 구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중첩되는 요소⁸⁾들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전략문화 형성요인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경험이다.

국가적 전통, 정치사회적 요인, 군민 관계와 관료조직, 군사기술과 무기체계, 그리고 정치문화와 이데올로기 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개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강석, “박치기형 북한의 전략문화”, 『월간 북한』 제200호 (북한연구소, 1988), 184쪽.

- 5) 황일도, “북한의 전략문화와 군사행태 -핵무기개발, 재래식전력 배치, 연평도 포격사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p. 30.
- 6) 먼저 국어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①주석·번역·서문 및 부록 따위에 대한 본문 또는 원문, 원전 ②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진 한 덩어리의 글 ③교과서 등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민중서림, 위 사전, 2617쪽. 구체적인 독서 행위나 비평 행위를 통해 독자에게 소통되고 해석되기 이전의 문학 원전(原典)을 가리킨다. 본래 이 용어는 20세기에 들어와 발전한 문학 연구 분야인 ‘원전 비평’에서 다양한 이본들 중 확정된 원본 하나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한용환,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1999). 이러한 텍스트의 이해과정은 필자, 텍스트, 독자, 상호작용, 문화맥락에 있다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텍스트의 이해는 텍스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독자의 마음속에 새롭게 구성됨으로써 이루어진다. 독자가 텍스트의 기호에서 뜻을 파악하는 활동이 ‘뜻알기’이며, 텍스트가 담고 있는 속뜻을 찾는 것이 ‘속뜻 풀기’이다. 김도남, “텍스트 의미의 위치와 이해 과정에 대한 교육적 인식”, 『독서연구』19 (한국독서학회, 2003), p. 72. 특정 국가의 전략문화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설문조사, 사회조사방법론을 활용하여 사고방식의 패턴을 계량적으로 추출하는 방법, 역사적인 서술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론 사용이 제한되어 텍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 7) 홍용표, 『북한의 전략문화와 안보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6~11.
- 8) 북한 전략문화 형성요인에 대하여 홍용표는 지정학적 요인, 역사·경험적 요인, 분단의 영향, 전쟁의 경험: 한국전쟁, 정치문화: 주체사상 요인을 김백주는 전통적 전략 사상: 북한의 대외관계사 및 전쟁 인식, 사회적 관계: 유교적 위계질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경험, 해방과 국가건설 경험, 주체와 주권개념의 요인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홍용표, 위의 논문, pp. 11~24. 김백주, “북미협상과 북한의 전략문화”,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pp. 8~46.

항일유격대 경험은 북한체제를 통치하는 정통성의 근간이⁹⁾ 되었으며, 곧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조치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군사협상 전략 및 협상행태의 특징을 학문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서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하여 여전히 ‘비합리적’(irrational)¹⁰⁾이며 ‘예측불가능’(unpredictable)하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행동을 ‘비합리적’이고 ‘예측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할 경우에는 향후 북한의 제반 정책을 전망하여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의 문화 및 역사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합리적’이고 ‘예측불가능’한 북한의 행동을 일정 정도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행동 양식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문화적 접근법은 북한의 군사협상을 이해하는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군사협상 분야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3. ‘세기와 더불어’ 속의 전략문화

전략문화의 핵심사항인 항일유격대 경험과 관련하여 어떤 문헌이나 자료 등을 통하여 군사협상을 분석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김일성이 역사적, 서술적으로 저술하여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는 원전들을 텍스트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 가운데 통치 엘리트들에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핵심적인 텍스트를 키텍스트로 명칭하여 활용¹¹⁾하고자 한다.

그럼 과연 텍스트들 중에서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북한의 전략문화를 확인할 것인가 다음 단계이다. 북한의 키텍스트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9) 와다하루키는『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북조선』에서 김일성의 항일전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사상, 이데올로기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북조선에서는 막대한 에너지를 투여해 이데 관해 연구하고 정사를 서술하며 거기에 기초한 교육과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와다하루키,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북조선』(서울: 돌베개, 2009), p. 37.

10)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불량국가론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북한의 외교행태가 예측불가능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통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학문적 연구보다는 미국 정치인들이 자주 언급했다.”, 박상현, “북한 대외정책의 합리성에 관한 고찰”, 『통일정책연구』18 (통일연구원, 2009), pp. 36~37.

11) 키텍스트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 존스톤(Johnston)은 특정 국가의 전략문화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입증가능해야 하며 둘째, 해당국가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경험적 예측을 제공하여야 하며 셋째, 문헌과 텍스트 등 구체적인 경험적인 산물이 있어야 하며 넷째, 시간의 흐름이나 세대교체에 따른 변화요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의 배경으로 존스톤은 중국연구에 있어서 ‘무경칠서’(武經七書)라는 고전 병법서를 키텍스트로 활용¹⁾하여 무력사용에 관한 인식과 대외관계 인식을 분석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김백주¹⁾가 조선 문종때 저술된 ‘동국병감’을 활용하여 북한이 대외관계사와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황일도¹⁾는 북한의 전략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방법론으로 키텍스트에 대한 분석이라는 경로를 채택하여 북한의 군사행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키텍스트로 선정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1-8권)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후 정체성 및 위협인식 등 3개 분야 11개 주요 의미구조로 분류하여 전략문화적 속성과 정책선택을 비교하는 데 활용하였다.

첫째, 북한의 군사정책 결정과정에서 충분한 권위를 갖고 인용되어온, 성문화된 문서나 책자이어야 한다. 둘째, 본 논문의 주제인 군사협상에 대한 사례가 잘 드러나 있으면서 현재에도 그 영향력 혹은 규정력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셋째, 키텍스트 관련하여서는 누구도 비평하거나 개인의 사상을 추가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선정 기준을 고려해 보면 김일성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는 선정 기준에 가장 합당한 문헌임을 확인¹²⁾할 수 있다. 북한에서 아직까지 ‘세기와 더불어’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시키는 문헌은 존재하지 않으며 김정일 또한 회고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귀중한 혁명의 교과서¹³⁾라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서 이 회고록은 현재도 북한의 간부들과 당원들, 북한 군인들¹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혁명의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영향력을 포함하여 여러 측면들을 고려해서 ‘세기와 더불어’를 선택하였으며, 회고록 전체를 분석하지 않고 순수한 담판사례만을 분석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키텍스트 활용 방법론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키텍스트로 선정한 ‘세기와 더불어’에 나타난 주요 전략문화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 보면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는 형식으로 구성 되어있다. 회고록 내용 중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활동¹⁵⁾이 가장 중점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회고록의 내용은 현재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반복적인 인용¹⁶⁾과 학습을 통하여 새로운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북한이 선택해야 하는 군사정책과 협상행태의 양상을 규정하는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12) 북한의 책자 중 학습사전을 발간한 책으로 학습사전 첫 페이지에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시대와 인류의 앞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바치신 절세의 위인의 영웅서사시적 한생이 집대성 되어 있는 불멸의 혁명적대백과전서이다.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그가 담고 있는 한없이 풍부한 혁명적 내용과 거대한 견인력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과 진보적 인류의 자주위업 수행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혁명의 교과서로 된다...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학습을 더욱 심오히 하고 있으며 그에 담겨져 있는 불멸의 사상과 내용들을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 고무적 가치로 삼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학습사전』1,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8), p. 1.

13) 김정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어나가자”, 『김정일 선집 1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52.

14) 북한은 증보판 학습사전을 발행하면서 “간부들과 당원들, 인민군군인들, 근로자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편찬 발행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불멸의 사상과 내용들을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 고무적가치로 삼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학습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8), p. 1.

15) 이러한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전통은 현재 북한의 사상문화적 기반으로 정착되어 있다. 김광운은 북한정치사연구 결론에서 “김일성 지도체계는 일제하 항일무장투쟁으로부터 배양되어 김일성의 정권장악과 함께 그 원형이 성립되었다. 김일성 지도체계를 만들어낸 항일유격대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북한의 당·정권기관·군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1』(서울: 선인, 2003), p. 749.

16) 북한은 모든 연구논문, 각종도서, 군사교범을 포함하여 각종 발간물의 서문이나 내용 중에 김일성 회고록, 선집, 김정일 선집에 수록된 내용을 반드시 제시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4. 북한의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과 분석들

1) '세기와 더불어' 담판사례 분석

김정일시대의 군사협상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나타난 모든 담판사례를 확인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우선 회고록 내용 중에서 제반 담판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이다. 이렇게 도출된 담판17) 사례를 대상으로 담판행태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분석된 담판사례 중에서 담판의 원형 즉 협상모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협상모델 선정시에는 성공과 실패사례를 선정하여 제반 군사협상 행태에 대한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회고록 내용 중 주요 담판사례를 살펴보면 총 6건의 담판18) 내용이 김일성에 의해 회고되어 있다. 6건의 담판 내용 중 5건의 사례가 협상으로서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1건은 협상의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5건의 담판사례 중 양자 간 협상사례는 4건이며 나머지 1건은 다자간 국제 담판사례이다. 4건의 양자 간 담판사례 중 2건은 김일성이 성공한 사례이며, 나머지 2건은 실패한 사례이다.

2) 항일유격대 군사협상모델의 구축

북한은 '항일유격대식'의 전통을 '혁명전통'으로 승격시켜 '소련식'을 대체하는 사회주의 교양의 정신적 내용19)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노동당 활동방식의 총체를 의미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 '혁명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항일유격대의 '사상체계', '사업방법', '사업작풍'을 계승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20) 특히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에 대하여 김일

17) '세기와 더불어' 나타난 협상은 김일성이 유격대 활동시기에 실시하였던 협상으로 군사협상으로 판단하였으며, 북한의 정권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협상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본 논문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현재의 북한의 통치엘리트들이 항일무장투쟁 시기 김일성의 군사협상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전략적 교훈과 인식 등이 전략문화의 속성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전략문화가 협상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유추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18) 김일성 회고록 원문에는 '담판'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김일성의 회고록을 언급할 때에는 '담판'의 용어를 김정일시대에는 '협상'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필요시에는 회담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참고적으로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자들의 협상이론과 행태에 대해서는 알프레드 D. Wilhelm, Jr.)가 저술한 『중국인들의 협상기법·방식과 특징』(The Chinese at the Negotiation Table-Style & Characteristics)의 책자를 참고하면 빌헬름은 국가간 협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와 그 용어들 간에 존재하는 개념의 차이를 지적하였다. 즉,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의미에서 영어의 'negotiation'을 직역한 중국어는 '담판'이지 '협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담판'에는 우호적 협상과 적대적 협상의 개념이 함께 함축되어 있으나 적대적 협상쪽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갖는다. 우호적 협상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용어들이 '회담', '회상', '협상' 등으로 이 가운데 '협상'이 가장 우호적 분위기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적대적 협상의 경우 중국공산주의자들은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서두의 협상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협상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Alfred D. Wilhelm, Jr.: *The Chinese at the Negotiation Table-Style & Characteristics*(Washing,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4), pp. 3~10.

19)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서울: 선인, 2005), p. 813.

20) 김일성은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계승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항일유격대의 사상체계를 계승하며

성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제도,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없애고 모든 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하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는 사업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 방법을 개선하는데서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구현할데 대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현실속에 들어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당정책 관철에도 대중을 조직동원하며 아랫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르쳐주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야 하겠습니다.”²¹⁾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에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항일유격대식의 용어를 널리 사용하면서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등으로 현재도 사용 및 학습되어지고 있다. 당의 구호 자체도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와 같은 구호²²⁾를 앞세워 당 정책의 무조건적 관철을 독려²³⁾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당사업의 중요한 과업²⁴⁾으로 여기고 있으며, 오늘 날에도 여전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은 현재까지도 모든 사업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원형을 창조한 불멸의 혁명업적²⁵⁾으로 간주되고 있다.

김일성의 회고록에 나타난 담판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방적인 담판이나 본 연구와 거리가 있는 담판을 제외하면 ‘오의성²⁶⁾과의 담판’ 및 ‘고이허와의 담판’이 협상의 절차를 준수하면

그 우수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계승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항일빨찌산은 지주, 자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해서 싸우며 언제든지 인민과 같이 살고 인민과 같이 싸우는 그러한 투쟁정신의 전통을 세웠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김일성,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 『김일성 저작집』 제1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65.

21) 김일성,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30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545.

22) 1974년 3월 김정일은 유격대국가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슬로건으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항일유격대식 당생활체계를 새로운 당생활 총화제도로 확립하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p. 482~484.

23) 김정일, “전당에 혁명적당풍을 철저히 세우자” 『김정일 선집』 제9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125.

24) “우리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당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할것입니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입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전통을 철저히 구현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 저작집』 제3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382.

2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렇듯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력사적행정에서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주고 해설과 설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상을 발동시키는 방법,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방법,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방법을 기본내용으로하는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여오셨었다. 이것을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보장해주는 혁명적사업방법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원형을 창조한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1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p. 146.

26) 북한측 문헌에 의하면 오의성은 중국인으로서 장개석의 보좌관이었으며 민족주의자이며 반일부대 지휘관이다. “중국

서 연구가치가 있는 전형적인 것으로 표준 협상모델²⁷⁾로 판단할 수 있다. 2가지 담판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담판 준비단계, 초기단계, 중간단계는 성공과 실패의 영향이 최소화한 가운데 일정한 담판절차에 의거해 진행 된다. 이와 같이 성공 및 실패 사례로 선정된 2가지 표준담판에 대해서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²⁸⁾로 명칭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3)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구성 및 분석들

군사 협상행태 모델의 구성요소는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를 종합하여 비교해 본 결과 구성 사항은 협상관, 협상문화, 협상전략, 협상전술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군사협상 행태는 특정 요인이 협상행태로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 구성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협상행태로 표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고찰결과 및 김일성 회고록을 바탕으로 분석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 분석들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군사협상에 대한 기본인식인 협상관을 바탕으로 → 군사협상에 대한 협상문화 배경 요소 → 군사정책 목표와 연계된 군사 협상전략 → 군사협상 단계별 협상전술로 분석들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전략과정²⁹⁾에 의거하여 도출 및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군사협상에 대한 기본인식인 협상관을 가장 먼저 도출하였다.

다음 단계는 이같은 특수협상관을 배경으로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시절 담판사례를 분석하여 도출한 협상문화의 요소는 대표적으로 ①김정일 주도형, ②압박과 회유의 위협적 협상, ③통일전선 등을 포함하는 문화로 정의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군사협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북군 왕덕림부대에서 중대장을 하다가 왕덕림이 9.18사변직후 반변하여 항일구국의 기치를 들자 그에 호응해나섰다. 1932년 2월 주옥 국민구국군조직당시 구국군 전방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1933년 1월 왕덕림이 중국관내로 가기 위해 쓰련으로 들어간후 구국군의 나머지부대들로 동북국민구국군을 못하고 총사령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일부대와 전면적인 연합전선을 위하여 1933년 6월 라자구에서 담판하실 때 반일인민유격대와 반일연합전선을 맺는데 동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학습사전 1》(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8), p. 338.

27) “게릴라 전투에 대한 신화는 김일성의 민족주의 사상의 튼튼한 뿌리가 되었으며 김일성의 경험은 북한인이 협상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원형이 되었다” 스코트 스나니더, 안진환·이재봉 역 (파주: 청년정신, 2003), p. 52.

28) ‘항일유격대식’의 용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창조하신 우리 당의 전통적인 활동방식의 총체를 이르는 말, 항일유격대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인민적인 군중사업방법, 혁명적인 생활기풍과 학습방법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항일유격대식은 모든 낡은 재래식을 타파하고 격식과 틀이 없이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 실속있게 하는 활동방식이다” 사회과학원, 『조선말대사전』 제2권 (사회과학원, 1992), p. 923.

29)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할 목적에서 군사력의 건설·배치 및 운용을 조정하는 술(術)과 과학(Art and Science)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략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전장전략의 구상과 이행인데 이는 통상 전술로 지칭된다. Dennis M. Drew · Donald M. Snoe, 『21세기 전략기획』, 권영근 역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pp. 66~72.

세 가지로 한정하였다. 협상문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상의 전 과정에 걸쳐 김일성이 자신이 담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항일 유격대의 혁명전통이 북한 사회의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군사협상 문화의 둘째 요소는 ‘압박과 회유의 위협적 협상’ 문화이다. 북한은 협상의 전 과정을 통하여 위협적인 발언 등을 통한 압박과 회유를 반복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협상을 다른 형태의 투쟁으로 보는 중국이나 구소련의 협상관을 배웠기 때문이다.

북한의 협상 인원들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 항일 유격대식 위협적 협상문화를 바탕으로 군사협상에서 남한 측에 대하여 압박과 회유, 억지와 변명, 독촉과 지연, 책임전가³⁰⁾ 등을 포함하는 협상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군사협상 문화의 셋째 요소는 ‘통일전선’ 사항이다. 일반적인 통일전선의 개념은 일정한 공동목표에 대하여 상호 협동하여 공동행동을 취하는 투쟁행태를 의미한다. 통일전선전술은 사회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투쟁방식으로 군사협상 문화의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실리주의적 입장에서 체제안정과 경제적 이익에 최우선을 두면서 저변에는 통일전선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 군사 및 경제분야 회담 등 모든 당국자간의 회담은 상층통일전선 구축 차원의 회담이었다.³¹⁾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 다음 단계는 군사협상 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략과정에 의거 군사정책 목표를 도출³²⁾하였다. 군사정책 목표는 북한 로동당 규약과 헌법에서 언급된 ‘근로인민의 이익옹호’, ‘외래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³³⁾을 보위’,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수호’라는 군사정책 목표를 지향한다. 군사정책 목표에서 세 가지 군사협상 전략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항일유격대 활동보장, 둘째는 조국의 독립활동, 셋째는 군사적 신뢰구축 및 신무기 개발 등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군사협상 전략은 협상전술의 행태로 협상장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군사협상이 진행되면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로 무장된 협상 인원들에 의

30) 군사협상 전문가 문성묵은 북한 협상행태의 특징 중 압박과 회유를 가장 큰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남북군사회담 경험을 기초로 살펴 본 북한의 협상전략”, 한반도 군비통제. 제47집 (국방부, 2010년 6월), p. 63.

31) 차주완,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변화 연구”, 『군사논단』 제66호 (국방부, 2011), p.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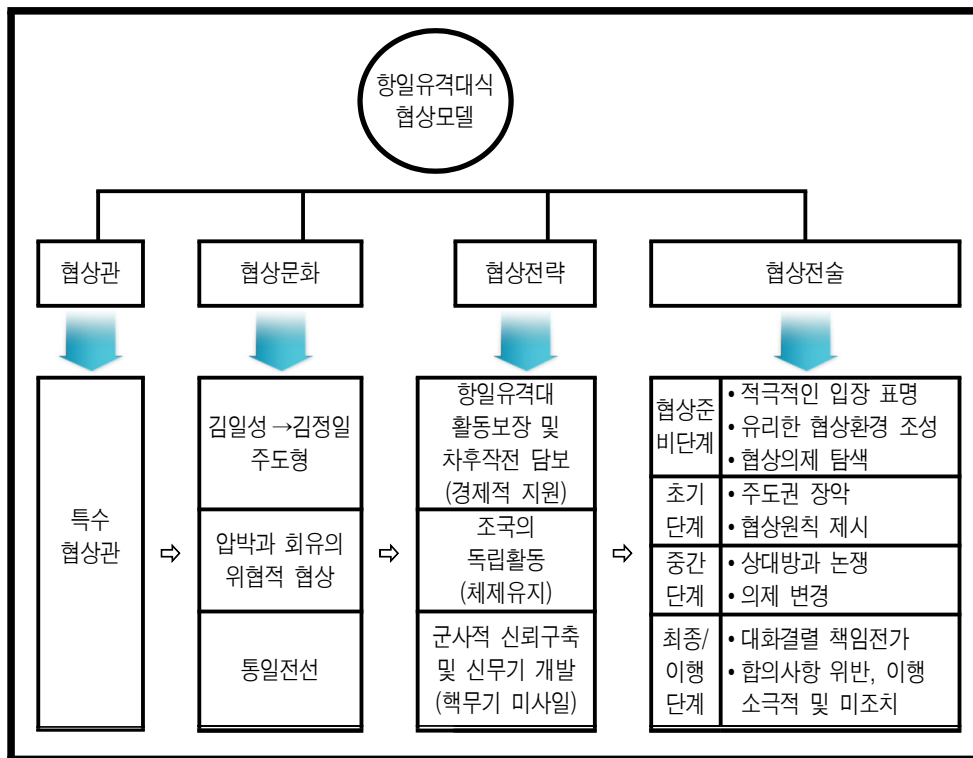
32) 목표 결정에 대한 사항으로 전략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변함없는 사실이 있는데 이는 거시 및 미시적 수준 모두에서 국가목표의 결정이 전략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첫 번째 단계란 점이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승리는 요행과 다름이 없다.”, Dennis M. Drew · Donald M. Snoc, 위의 책, p. 62.

33) 북한은 혁명의 전취물을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혁명에서 승리하려면 자연과 사회, 사람을 개조하기 위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들이 이룩되게 된다. 이러한 성과들을 새로운 사회제도의 수립과 그 개조과정에서 이룩된 성과, 여러 가지 사상 정신적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모든 것이 다 속한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민대중이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전취물을 귀중히 여기고 옹호고수하면 확대하고 빛내어 나가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내외의 계급적 원수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대백과사전』 24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 223.

해 협상전술들이 표출된다. 협상의 단계는 학자별 협상단계를 고려하되 김일성의 회고록의 군사협상 사례인 ‘오의성과의 담판’과 ‘고이허와의 담판’에서 분석된 단계를 적용하였다. 즉 협상의 준비단계, 초기단계, 중간단계, 최종 및 이행단계 등 총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협상전술을 분석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구성한 항일 유격대식 협상모델의 분석틀은 다음 표 <2-1>와 같다.

<표 2-1>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 분석³⁴⁾



34) 이 분석틀은 필자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정일시대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 행태”(2013) 분석틀을 활용한 것임.

Ⅲ. 군사협상³⁵⁾에 대한 협상모델 적용 및 특징

1.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 적용

1) 국방장관회담

(1) 협상관

제1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은 한때 회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의제는 회피하고 교류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문제 및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 협의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의제들은 군사회담의 본질과는 거리감이 있는 사항으로 이는 여전히 북한 측이 협상을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는 여전히 체제 유지를 위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2차 국방장관회담 진행 과정에서는 기초발언을 통하여 여전히 주적문제,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강조하는 등 “전쟁의 길을 택하려는 무모한 흥심의 발로로 될 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변화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즉 이는 북한이 여전히 협상을 투쟁의 한 수단이며 투쟁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추구하기 위한 특수협상관에 의거하여 군사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협상문화

가) 김정일 주도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으로서 군사협상을 전적으로 주도하였으며, 특히 6·15정상회담 이후 1차 회담, 10·4선언 이후 2차 회담³⁶⁾은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일의 모습을 다시 한 번 각인³⁷⁾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김정일이 제 분야에서 통치능력을 보여 주면서 주민들의 사고를 통제하는 데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35) 김정일시대 대표적인 군사협상인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에 대하여 협상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세부적인 군사협상의 전개과정 및 경과에 대해서는 논문 4장 김정일시대 남북 군사협상 전개과정을 참조할 것.
- 36) 김정일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방장관급 회담은 2000년 9월에 제주도에서 한 이후에 질질 끌고 왔는데, 이번엔 평양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한다면 해도 좋고 실무적 토론을 거쳐서, 군사당국 회담에서 안건은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를 비롯해서 북남경제협력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보호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토론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회담의 개최 및 의제까지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 37) 제1차 국방장관회담의 공동보도문을 1면 우측에 2단 박스기사로 글씨 크기를 조정한 후 게재하여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북한 주민에게 김정일의 광복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로동신문』, 2000년 9월 27일.

제1, 2차 국방장관회담은 김정일의 결정에 의거 협상이 개최되었으며 특히 2차 회담은 통일부장관이 김정일을 찾아가 개별면담을 통해 가시화 되었다. 2차 회담 합의서 관련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김영철이 합의를 들고 나간 후 3시간 40분이나 지나서 돌아왔다.³⁸⁾ 이와 같은 군사협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김정일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압박과 회유의 위협적 협상

제1, 2차 회담에 걸쳐서 기초연설을 통하여 위협성 발언을 거침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제2차 회담 협상 중에도 북한 측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NLL 획정문제를 우선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논의를 할 수 없다고 위협하였다. 또한 제2차 회담 시 1일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자마자 북한 측 단장 김일철은 기초발언에 앞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기선을 제압하여 하였다. 그는 남한 측이 불법적인 북방한계선을 유지하려는 입장에 매달리는 것은 남북정상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한 후 김장수 장관에게 2차 남북정상 회담 때도 예의없는 행동에 불쾌감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이번 회담이 과연 좋은 결실을 마련할 수 있을지 크게 우려된다고 인신공격도 서슴치 않았다.

다) 통일전선

6·15공동선언 1항에 남과 북이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한 항목을 근거로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통일담론의 최상위 주체로 격상시켰다. 그리하여 북한은 ‘우리민족끼리’에 대해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에서 우리민족이 주인이 되고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할 데에 대한 사상으로 공식 규정하고 있다.³⁹⁾ 이때부터 북한은 ‘우리민족끼리’와 더불어 민족공조 개념을 작전 개념화시키는데 “우리민족끼리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고 통일의 대명제이며, 민족공조는 공동선언의 성과적 이행과 자주통일의 담보인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라는 것이다.⁴⁰⁾ 이러한 민족담론 투쟁은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라는 두 테마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했고 그 양식은 통일전선 전략 전술에 따르게 된 것이다.

38) 이상철, 『북방한계선 기원·위기·사수』, 선인, 2012, p. 260.

39) 김광혁, “통일시대의 기본이념: 우리민족끼리”, 『천리마』(평양: 천리마사, 2007), p. 76.

40) 최기완, 『6·15시대와 민족공조』(평양: 평양출판사, 2005), p. 45.

(3) 협상전략

가) 경제적 지원확보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의 군사적 보장

김정일시대 군사협상 자체가 북한 측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체제유지와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던 사항이 많았다. 특히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이후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욱 노력⁴¹⁾하였다. 또한 당에서는 강성대국 건설 구상의 일환으로 근로인민의 이익 옹호를 위하여 경제 건설에 관련된 구상⁴²⁾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갔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 건설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구책이었던 것이다. 나아가 경제적 지원 확보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과 군사적 보장은 근로인민의 이익옹호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로인민의 이익옹호’를 위한 경제적 지원 확보를 위한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의 김정일시대의 군사협상전략은 어쩌면 당연한 전략으로도 여겨진다. 이것은 선군시대의 필수적 요구사항⁴³⁾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북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라는 전투적 구호⁴⁴⁾를 앞세우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비약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상황 하에서 경제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것은 협상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41) 김정일은 2000년 신년사를 통하여 “혁명적 경제정책은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의 전투적 기치이다. 제국주의포위속에서 제힘으로 살아나가는 길도 당의 경제정책에 있고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비결도 당의 경제정책관철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00년 1월 1일.

42)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 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은 강력한 국가경제력에의해서만 안받침되며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꽃피워 나갈 때 실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기백과 혁신에 넘쳐 총 돌격, 더 높이 비약해 나갈 때에만 그 실현을 담보할수 있는 것이다.” 천영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우는것은 우리 체도제일주의를 구현하기위한 중요문제”, 『경제연구』1(루계11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p. 8.

43) 북한은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선군시대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하면서 “인민생활향상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경제적으로 안받침하기 위한데서 현시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와야만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대로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휘하여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현, “올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는것은 선군시대의 필수적요구”, 『경제연구』4(루계129호) (평양: 과학원출판사, 2005), p. 6.

44)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리고 있다. 엄혹한 시련에 찌든 지난 10여년간 우리는 선군의 기치밑에 혁명대오의 일심달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져놓았으며 경제강국건설의 귀중한 물질적 밑천을 마련하였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명마를 향하여 더 높이 비약하고 더 빨리 달려 나갈수있는 기초가 다져진 오늘 우리 당은 전당, 전군, 전민이 대담하고 전면적인 공격적을 벌려나갈것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 위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 『경제연구』1(루계130호) (평양: 과학원출판사, 2006), p. 2.

나) 체제유지 및 보장을 위한 군사활동

김정일은 2000년대 대규모의 경제적인 침체와 북한체제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군사협상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도모하여 경제적 위기 국면을 해소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군사회담과 병행하여 실시된 각종 군사도발을 분석함으로써 ‘체제유지 및 보장을 위한 군사활동’의 협상전략이 군사협상 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군사도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는 총 292건의 군사도발을 자행하였으며, 유형별로 도발 횟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도발은 북한경비정 및 어선의 NLL침범이 225건이었다. 다음으로는 판문점 지역에서 미군에 대한 도발이 20건, 총격 및 포격도발이 12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⁵⁾ ‘체제유지 및 보장을 위한 군사활동’은 군사협상에서 최초부터 유리한 협상환경 조성과 사전에 유리한 협상의제 탐색에 좋은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군사협상의 주요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군사협상을 통해 김정일의 영도자 이미지를 부각 시킴으로써 김정일 체제를 공고화하고 내부결속을 강화하는데 활용⁴⁶⁾하였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김정일 체제의 대내외적 위상제고와 체제위기의 극복을 도모한 것이다.

다) 군사적 신뢰구축,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북한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하여 정상회담 등 전방위 외교를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에도 일정부분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와 같은 군사회담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의제 합의는 극히 미흡하다는 것은 이면에 또 다른 협상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북한이 그동안 교류협력의 군사적 지원에서 보인 적극적인 태도와는 다르게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등 순수 군사문제에 대한 협의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북한이 군사협상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의 명분을 활용하여 타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가장하면서 북한은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인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관련⁴⁷⁾ 활동은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은 이러한 ‘자주권’⁴⁸⁾을 수호하기 위

45) 국방부, 『2012 국방백서』(서울: 호박앤컴퍼니, 2012), p. 309.

46) 김용현, “북한 내부정치와 남북관계: 7·4 남북기본합의서, 6·15 비교”, 『통일문제연구』16권 제2호 통권 42호 (평화문제연구소, 2004), pp. 9~10.

47) 북한은 1955년 3월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 설치’이래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해왔으며 2005년 2월에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48) 김일성은 북조선노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팽창정책을 실현하며 약소민족의 자주권을 침범하기 위하여 《원자탄외교정책》, 《팔라외교정책》, 《트루먼주의》, 《마셜계획》 등 각종 술책을 다 쓰고있으며 세계를 지배하려는 전면적인 반동공세로 넘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오늘날 미국팽창주의자들은 전쟁에서 파괴된 서구라파와 동방의 여러 나라들에는 물론, 서반구에까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캐나다의 경제를 침범하고있으며 전아세아를 지배하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의 미국의 정책은 이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거로 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을 미국독점자본의

한 핵심 전략으로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작은사회주의강국’ 건설 이미지를 구축하여 대내외적인 정치적 위신을 증대시킴으로써 그들의 유일지배정권 안보를 추구하는 국가전략을 선택해 왔다.⁴⁹⁾

4) 협상전술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단계별로 나타나고 있는 협상전술을 항일유격대식 협상전술과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항일유격대식 협상전술과 김정일시대 협상전술 비교⁵⁰⁾(제1, 2차 국방장관회담)

단 계	항일유격대식 협상전술	김정일시대 협상전술		
협상 준비단계	회담 개최에 적극적인 입장표명, 분위기 조성	1기	회담장소를 홍콩, 베이징 → 제주도로 수정제의 및 방문	회담 개최에 적극적인 입장표명
		2기	3회 군사실무회담을 통한 적극적 입장	
	유리한 협상 환경 조성	1기	6·15남북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 강조	유리한 협상 환경 조성
		2기	10·4선언의 철저한 이행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강조	
	사전 유리한 협상의제 탐색	1기	경의선 문제 관련 군사적 안전보장 문제로 한정	사전 유리한 협상의제 탐색
		2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	
협상 초기단계	주도권 장악시도	1기	6·15남북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강조(계속)	주도권 장악시도
		2기	10·4선언의 철저한 이행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지속 강조	
	협상원칙 제시	1기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방해를 주는 군사적 문제로 한정	협상원칙 제시
		2기	군사적 대책과 관련한 군대의 원칙적 입장과 실현방도 제시	
협상 중간단계	협상 상대방과 논쟁 및 압박	1기	경의선 문제 관련 군사적 안전보장 의제 외에 추가의제 소극적	협상 상대방과 논쟁 및 압박
		2기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재설정 문제 집요하게 요구 및 압박	
	협상의제 변경 및 요구	1기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 비무장지대 출입보장 문제 실무급 토의 제의	협상의제 변경 및 요구
		2기	기자단 집합요구, 북측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북측 주장 내용 공개 요구	
협상	회담결렬	1기	주적개념 문제로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책임전가	회담결렬

예속국으로 만들며 아세아와 태평양연안의 여러 나라들을 침범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환시키려고 시도하고있습니다.” 김일성, “북조선노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 저작집』제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196~197.

49) 정영태, “김정은 체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미래 전망: 2012년 학술회의』(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2), p. 57.
 50) 협상전술 비교표는 필자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정일시대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 형태”(2013) 비교표를 활용하여 국방장관, 장성급, 군사실무회담 협상전술 분석간 활용한 사항임.

단 계	항일유격대식 협상전술	김정일시대 협상전술		
		최종 / 이행단계	책임전가, 합의사항 일방적 거부, 지연조치	2기
	합의사항 이행 소극적 및 미조치	1기	제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 합의사항(2000. 11) 미준수 및 소극적 태도(2007년 개최)	합의사항 이행 소극적 및 미조치
		2기	제3차 국방장관회담을 2008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합의사항 미준수 (현재까지 미개최)	

2) 장성급군사회담

(1) 협상관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에서 협상관은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전개하는데 구국군과 담판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특수협상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김정일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특수협상관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협상관은 제1차~제7차 장성급군사회담에 대한 협상관은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동일하게 특수협상관에 의거 군사협상을 진행하였다. 물론 제5차 회담에서 일반협상관의 자세가 일부 보였지만 심층분석 결과 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경제적인 실리 등을 챙기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회담 개최 자체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군사회담에 대한 특수협상관 인식⁵¹⁾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

(2) 협상문화

가) 김정일 주도형

장성급군사회담은 2004~2007년까지 총 7차례 개최되어 군사적 긴장완화, 서해공동어로, 교류협력의 군사적 지원 등의 문제가 집중 협의된 군사회담이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논의한 중요한 군사회담이었으나 북한은 NLL을 무력화 및 체제의 큰 부담요소였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선전활동 중지와 선전수단 제거하기 위한 협상장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군사협상은 당연히 김정일 주도형으로서 회담의 전략 및 개최는 물론 협상의제와 진행사항까지도 김정일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음을 협상 참가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나) 압박과 회유의 위협적 협상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에서는 협상문화 중 구국군과의 협상에서 압박과 회유의 위협적 협

51) 문성묵 면담결과(2012년 5월 23일)

상을 실시하였다. 이는 김정일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모든 군사협상에 북한 특유의 위협과 위협박성 발언을 통한 항일유격대식 위협적 협상을 진행하였다.

제1~제7차까지 실시된 장성급군사회담 진행간 한번도 빠짐없이⁵²⁾ 남한측에게 위협성 발언⁵³⁾을 실시하였다. 전형적인 항일유격대식 위협적 협상문화가 군사협상 저변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군사회담이다.

다) 통일전선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에서는 협상문화 중 구국군과 협상을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협상을 실시하였다. 이는 김정일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모든 군사협상을 상층통일전선의 구축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민족담론을 앞세워 통일전선 투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난을 극복하고 남북공조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남한 내 남남 갈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회담시 마다 지속적으로 6·15 공동선언,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추가하여 10·4 선언 정신까지 주장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정신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상호 연계되어 있고 일맥상통한 것으로 북한측의 민족담론⁵⁴⁾이다. 이러한 의도는 제1~7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동일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것은 군사회담 자체를 상층 통일전선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협상전략

가) 경제적 지원확보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의 군사적 보장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어려운 국내사정은 제반협상에서 경제적 실리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김대중 정권과협상에서 진정성을 확인한 후 노무현 정권에서는 과감하게 체제유지관련 현실적인 문제와 경제적 지원 분야로 지원범위를 넓혀 가는 수순을 밟았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실리획득 확장 단계로 나아가는 협상 전략을

52) 장성급 군사회담에 대한 로동신문 분석결과 북한측은 한번도 빠짐없이 기초발언을 통하여 남한측을 위협하는 발언을 실시하였다.

53) 대표적인 사례로 제3차 회담에서 북한측은 회담의 근본적인 의제인 NLL문제부터 협의해야 하며, 이 문제를 협의하지 못한다면 일체의 다른 회담이나 추가 회담은 없다고 하였다. 제4차 회담에서는 NLL에 대한 공격으로 회담을 일방적으로 물고 나갔다. 제7차 회담에서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한사코 고수해보려는 남측의 주장은 화해협력의 시대에 도전하여 피의 교전을 불러온 역사의 전철을 다시 밟아보겠다는 위협한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고 위협하였다.

54) 우리 민족끼리 리념이 담고 있는 본질적 내용은 무엇보다 민족의 자주성을 민족자체의 힘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장하면서 자주성에 대한 강조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를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과 접점을 찾아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를 서로 연결하는 도구로도 활용하고 있다. 김만혁, “우리민족끼리의 리념과 본질”, 『사회과학원 학보』 제2호(루계 42호) (사회과학출판사, 2004), p. 12.

구사한 것이다. 특히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경제적 지원 확보를 교류협력 사업의 군사적 보장에 대한 협상전략을 살펴보면 경제적 보상의 문제와 직접으로 연계되는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 철도·도로 연결 등 3대 남북경협 사업 확대에 관련된 군사적 보장 협상의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 체제유지 및 보장을 위한 군사활동

북한은 장성급군사회담을 이용하여 심리전 수단 제거 및 NLL무력화 주력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담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NLL을 침범하였다.

심리전 수단 및 NLL무력화를 위해서북한은 계획적으로 접근하였다. 1기 군사회담에서는 심리전 수단물 제거에 노력하였으며, 2기 군사회담에서는 1단계 목표 달성이 완성되자 2단계 목표인 NLL 무력화를 위한 협상전략을 표출하였다. 2단계의 목표 달성이 제한되자 3기 군사회담에서도 지속적으로 NLL 무력화를 위한 협상전략을 구사하였다. 물론 1단계의 목표는 달성하였지만 2단계 군사회담의 목표는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의 속내를 제시함으로써 목표 달성은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단계별 협상전략에 의거 군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장성급군사회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군사적 신뢰구축,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군사적 신뢰구축,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의 군사협상 전략을 위해서는 장성급군사회담의 성격을 고려하여 국방장관급회담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군사협상 의제를 제시하면서 협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6.4 합의서)’의 3건⁵⁵⁾을 합의하였다. 북한은 이와 같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앞세워가면서 내부적으로는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박차⁵⁶⁾를 가하였다. 특히 2006년 7월 5일에는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발의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였으며, 동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통하여 핵보유를 통한 핵강대국으로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와 협상력의 극대화⁵⁷⁾를 위한 카드를 꺼내었다.

55) 북한과 합의한 3건은 6.4합의서의 부속합의서(2004. 6. 12), 공동보도문(2007. 5. 11), 동·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2007. 5. 11) 등이다.

56) 통일연구원에서 발행한 남북관계연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권 기간(2003. 2~2008. 2) 중 북한은 미사일 발사 3회, 핵 위협 및 실험 관련 발언을 16회 실시하였다.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표 1948년~2011년』(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344~454.

57) 북한의 핵실험은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는 대미 협상력의 극대화를 위한 정치적 카드이다. 둘째는 핵보유를 통한 핵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실험의 본질은 협상력의 극대화를 위한

(4) 협상전술

제1, 2, 3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단계별로 나타나고 있는 협상전술을 항일유격대식 협상전술과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 표 <3-2>과 같다.

<표 3-2> 항일유격대식 협상전술과 김정일시대 협상전술 비교(제1, 2, 3기 장성급군사회담)

단계	항일유격대식 협상전술	김정일시대 협상전술		
협상준비단계	회담 개최에 적극적인 입장 표명, 분위기 조성	1기	회담개최 선 제의 / 합의	회담 개최에 적극적인 입장
		2기	회담개최 합의	
		3기	회담개최 선 제의 / 합의	
	유리한 협상환경 조성	1기	6·15남북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 강조, 수석대표 계급문제	유리한 협상환경 조성
		2기	6·15남북공동선언 철저한 이행과 우리민족끼리 정신 강조	
		3기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의 철저한 이행	
	사전 유리한 협상의제 탐색	1기	군사분계선 일대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사전 유리한 협상의제 탐색
		2기	서해 해상불가침경계선 재설정	
		3기	서해해상 충돌방지, 공동어로 수역설정, 해주항 직항	
협상조기단계	주도권 장악시도	1기	기조발언 활용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활동 중지 및 수단 제거 협상의제 강력하게 제기, 제2차 연평해전 언급	주도권 장악시도
		2기	한미 합동군사연습관련 강경발언, 북측 의제 협의시 남측 의제 협의 가능	
		3기	군사관계 3가지 교환, 군사적 긴장완화 부당한 처사 주장	
	협상원칙 제시	1기	1차 현 시기 쌍방군사사이에 우선협의 해결하여야 할 사항	협상원칙 제시
		2기	서해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 4가지 원칙, 상정의제 합의 방도	
		3기	장성급군사회담에 대한 원칙적 입장, 공동어로실현에 대한 원칙, 상정된 문제들에 대한 우리군대의 원칙적 입장	
협상중간단계	협상 상대방과 논쟁 및 압박	1기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활동 중지, 수단 제거 문제	협상 상대방과 논쟁 및 압박
		2기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재설정 문제 집요하게 요구(3, 4차 회담 : 논쟁으로 시작 논쟁으로 종료)	
		3기	남측 빼라살포나 통행질서 위반, 해상침범 등 (6차 회담 : 논쟁으로 시작 논쟁으로 종료)	
	협상의제 변경 및 요구	1기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활동 중지, 수단 제거 문제 동의 없이 우선 요구	협상의제 변경 및 요구
		2기	서해해상에서의 공동어로방식과 공동어로 수역에 대한 군사적 안전보장 조치는 실무적으로 결정, 북측 주장 언론에 공개하기 위한 공동기자회견 기습제의	
		3기	전체 종결회의 보도진 공개 요구, 해주직항문제 반복	
협상최종 / 이행단계	회담결렬 책임전가, 합의사항 일방적 거부, 지연조치	1기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6·4 합의 일방적 해석(재설정 요구)	회담결렬 책임전가, 합의사항 일방적 거부, 지연조치
		2기	북측 협상태도 관련 협상 미 진행, 회담 지연, 합동군사연습 관련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미치게 될 것.	
		3기	합의서 서명자 문제를 빌미, 장시간 회담 지연, 남측 군 당국이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지 않고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담 불가 위협, 결렬 책임전가	

정치적 카드의 성격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김용현, “북핵사태 이후 6자회담과 북한의 진로”, 『북한학연구』2권2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6), p. 64.

단계	항일유격대식 협상전술	김정일시대 협상전술	
	합의사항 이행 소극적 및 미조치	1기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관련 6·4 합의 미준수 ⇨ 연평도 포격도발(2010. 11), 천안함 피격(2010. 3), 대청해전(2009. 11) 북측, 함정간 교신 응답상태 미흡 ⇨ 제3국 불법어선 정보교환 중단(2008. 5. 19) 3차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합의 내용 미 준수(일정 지연)
		2기	차기 회담일정 소극적, 진화통지문 통한 회담 제의 미응답
		3기	2차 국방장관회담 회담 제시내용 공개 몸싸움(관례 위배), 회담일정 미정, 일방적 거부
			합의사항 이행 소극적 및 미조치

3) 군사실무회담

(1) 협상관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에서 협상관은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전개하면서 구국군과 담판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특수협상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김정일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특수협상관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과 동일하게 특수협상관에 의거 군사협상을 진행하였다. 물론 실무협의 차원에서 개최된 회담이라 협상관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근본적인 회담관은 변치 않았다. 이것은 군사회담을 대하는 북한측의 태도가 외부에서 비쳐지는 것처럼 일반적인 협상관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기초발언에서부터 특수협상관에 의해 투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매년 군사회담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측은 군사회담을 통해 그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 협상문화

가) 김정일 주도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은 물론이고 군사실무회담까지도 전형적으로 김정일의 통제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군사회담은 김정일의 통제사항⁵⁸⁾으로 승인 없이는 군사실무회담 개최 자체부터가 불가능하다.

북한은 오랫동안 김일성 주도형의 군사회담을 김정일 통치 이후에는 당연히 김정일 주도로 아래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김정일은 계승하여 군사회담에서 적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은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까지도 군사협상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58)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6장 제2절 국방위원회 조항을 살펴보면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2...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1.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모든 군사회담에 대해서 김정일이 조정통제하고 있다. 특히나 군사회담 참석인원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 결과 상부로부터 강하게 지시를 받고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문성묵 면담(2012년 5월 23일)

나) 압박과 회유의 위협적 협상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에서는 협상문화 중 구국군과의 협상에서 압박과 회유의 위협적 협상을 실시하였다. 이는 김정일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모든 군사협상에 북한 특유의 위협과 위협성 발언을 통한 항일유격대식 위협적 협상을 진행하였다.

군사실무회담에서 압박과 회유의 위협적 협상에 대한 문화는 로동신문 보도를 분석해보면 잘 나타나 있다. 매 회담시 북한은 지속적으로 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반복 및 위협성 발언내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북한의 군사협상 문화자체가 위협적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항은 항일유격대 시절이나 김정일시대나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 통일전선

북한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한측과 실시하는 군사회담을 포함하여 제반 회담에 대해서 상층통일전선의 구축차원의 회담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사항 때문에 모든 회담의 결과는 향후 현장에서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고 확대 재생산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북한측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한 이행투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남한 국민들을 선동하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로동신문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군사실무회담간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전반적으로 강조⁵⁹⁾하고 있다. 군사실무회담이라고 예외는 없다.

(3) 협상전략

가) 경제적 지원확보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의 군사적 보장

김정일은 2002년 7월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어서 신의주 특별행정구 구상의 발표(2002. 9. 19), 금강산관광지구법(2002. 11. 13) 및 개성공업지구법(2002. 11. 20) 등 경제관련 조치를 집중적으로 발표하면서 ‘실리사회주의’⁶⁰⁾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경의선 지역 군사보장문제 합의 및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통한 경제적 실리획득에 노력하였다.

노무현 정권에서 김정일은 체제유지 및 보장에 대한 자신감을 통하여 3대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실질적으로 확대시켜 나아갔다. 군사실무회담을 통하여 3대 남북경협의 군사적 보장조치로 인한 경제적 실리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나갔다.

59) 국방장관군사회담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제32차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남측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면서 매번 군사실무회담에서 6·15 공동선언 또는 10·4 선언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60) 배종렬, “김정일의 북한경제 10년 : 무엇이 달라졌으며 어떻게 바뀔 것인가?”,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 현황과 전망』 2004 (북한경제 심포지엄, 2004), p. 12.

이명박 정권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경협활동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군사적 보장활동을 유지하는 것이었으나 2008년 7월 남한의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⁶¹⁾이 발생하여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는 급격히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나) 체제유지 및 보장을 위한 군사활동

북한은 협상 중에도 DMZ, NLL 침범 등 군사도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체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관련 협의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전활동 중지 및 심리전 수단의 제거는 체제유지 및 보장을 위한 주요한 군사활동이었다. 체제유지를 위한 군사활동은 북한의 선택⁶²⁾에 따라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군사도발 활동을 지속하였다.

지속적으로 저장도 군사도발 활동을 실시하던 것에 비해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는 강화된 군사도발 활동을 협상전략으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 대청해전, 서해NLL 항행금지구역 설정 및 해안포 사격, 금강산 남측자산 동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의 도발과 강경조치를 취하였다.

다) 군사적 신뢰구축,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북한은 먼저 신뢰구축을 위한 각종 군사회담활동 강화와 군사적 긴장완화의 공동노력을 위한 남북 공동보도문 채택, 정전협정 재확인 등을 통하여 신뢰구축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북한측은 지속적으로 남측과 군사협상을 강화하면서도 미사일 발사 및 제1, 2차 핵실험⁶³⁾ 등을 통하여 위협전략 수위를 최고조로 상승시켰다.

북한은 남한, 미국, 일본 등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대포

61)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2008년 7월 11일 오전 4시 50분경(단, 일부 증언에 의하면 오전 5시 15분~20분경)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여성 관광객 박왕자가 규명되지 않은 이유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다. 북한은 관광객이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남한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진상규명을 북한이 거부함에 따라 사건의 실제 경위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62) 홍관희는 “북한은 군사협상의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도발을 자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한국의 대북정책과도 관계없이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은 지속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홍관희, 『대북포용정책의 발전방안 연구-남북 화해·협력 촉진 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0), p.18; 이미숙은 “북한이 군사도발을 중시한다는 것은 북한이 정치적 안정을 더 중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북한은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인민들을 위해 군사협상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보다는 체제유지를 위해 군사도발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즉 군사도발을 내부통제와 체제존속의 효율적인 방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미숙, 앞의 논문, pp. 152~153.

63) 통일연구원에서 발행한 남북관계연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권 기간 중(2008. 2~2010. 12) 중 북한은 미사일 발사 9회, 핵 위협 및 실험 관련 발언을 19회 실시하였다. 통일연구원, 앞의 책, pp. 454~506.

동 2호 미사일을 포함한 7기를 시험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10월 3일 1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2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 불구하고 2009년 5월 25일 실시하였으며 26~27일에는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2차 핵실험은 1차 핵실험에 이어 2년 7개월만의 핵도발이다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이후 불과 50일 만에 자행된 핵 위협이다.

4) 협상전술

제1, 2, 3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단계별로 나타나고 있는 협상전술을 항일유격대식 협상전술과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 표 <3-3>과 같다.

<표3-3> 항일유격대식 협상전술과 김정일시대 협상전술 비교(제1, 2, 3기 군사실무회담)

단계	항일유격대식 협상전술	김정일시대 협상전술		
협상준비단계	회담 개최에 적극적인 입장표명, 분위기 조성	1기	회담개최 선 제의 / 합의	회담 개최에 적극적인 입장표명
		2기	회담개최 선 제의 / 합의	
		3기	회담개최 선 제의 / 합의	
	유리한 협상 환경 조성	1기	6·15남북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 강조	유리한 협상 환경 조성
		2기	6·15남북공동선언, 우리민족끼리 정신 강조	
		3기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의 철저한 이행	
	사전 유리한 협상의제 탐색	1기	남북 군사보장합의서 합의선 안 토의(경제적 실리)	사전 유리한 협상의제 탐색
		2기	군사분계선 일대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및 서해 해상불가침경계선 재설정	
		3기	전단 살포문제 집중제기(회담책임 전가)	
협상초기단계	주도권 장악시도	1기	주적개념 명시 및 한미 합동군사연습관련 강경발언	주도권 장악시도
		2기	빠라살포행위 집중 추궁	
		3기	빠라살포행위 집중 추궁, 모든 북남합의들은 남측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달려있다고 협박성 발언	
	협상원칙 제시	1기	비무장지대안의 개방되는 구역에 대한 관할권 문제	협상원칙 제시
		2기	군사분계선지역의 선전수단제거사업 지연문제 및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 관련 지적 및 추궁에 대한 원칙	
		3기	빠라살포행위 및 군사연습중지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협상중간단계	협상 상대방과 논쟁 및 압박	1기	주적개념문제	협상 상대방과 논쟁 및 압박
		2기	합동군사연습 및 군사적 대결사항 중지	
		3기	남측 빠라살포 및 합동군사연습 중지	
	협상의제 변경 및 요구	1기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관련 행정상 이유로 회피	협상의제 변경 및 요구
		2기	장성급회담일정 6자회담과 연계할 것 기습적 요구	
		3기	남북당국간 합의·이행사항 문제협의키로 하였으나 민간단체의 빠라 살포문제 집중 제기	

단계	항일유격대식 협상전술	김정일시대 협상전술		
협상 최종 이행 단계	회담결렬 책임전가, 합의사항 일방적 거부, 지연조치	1기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타결에 대한 문제를 주적개념 문제와 연계하여 합의서 타결 지연, 제3차 회담에서 주적개념 문제로 회담 1시간만에 결렬, 책임전가	회담결렬 책임전가, 합의사항 일방적 거부, 지연조치
		2기	민간단체 진단살포 관련, 군사적 도발행위로 간주, 뼈라살포 행위 관련하여 좋게 발전하고 있는 북남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	
		3기	남조선괴뢰군부의 북남합의위반행위를 강하게 추궁하면서 군사실무회담 지연, 뼈라살포행위 관련하여 북남협력사업과 개성관광에 엄중한 후과 초래 및 회담공개 요구	
	합의사항 이행 소극적 및 미조치	1기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관련 합의 미준수 ④ 대청해전(2009. 11), 천안함 폭침(2010. 3), 연평도 포격도발(2010. 11)	합의사항 이행 소극적 및 미조치
		2기	회담일정 확정시 소극적 태도, 민족공조와 국제공조 중 택일 요구	
		3기	회담일정 미확정	

2. 항일유격대식 군사협상의 특징과 행동방식

김정일시대에 실시된 군사협상에 대한 항일유격대식 군사협상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요한 특징으로는 첫째, 체제유지를 위한 벼랑끝 전략이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의 지속되는 식량난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경제제재로 위기상황에 봉착(64)해 있는 상황을 벼랑 끝 전략을 통하여 헤쳐나갔다. 둘째, 동조세력 확보를 위한 통일전선전략의 활용이다.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을 군사협상 문화의 중요한 배경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군사협상을 통일전선의 유형(65) 중 상층통일전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정일시대에 대남전략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는 군사협상에서 통일전선은 민족담론을 앞세워 회담시 집중적으로 우리측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항일유격대식 군사협상 모델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협상의 주도권 장악하기’, ‘사실왜곡과 뒤집어씌우기’, ‘체면살리기’ 등 협상승리를 위한 행동방식으로 각종 군사협상을 실시하였다.

64) 특히 북한은 2001년 9.11테러에 따른 미국의 테러전쟁 개시 및 대북중유 지원과 대북송금 중단 등 대북경제제재로 북한의 경제난은 곤란하였다.

65) 통일전선의 유형에는 ①구축대상에 따라 상층, 중층, 하층 통일전선 ②범위에 따라 지역, 전역통일전선 ③조직형태에 따라 연합, 단일전선 ④식민지 여부에 따라 민족해방, 민족민주전선 ⑤합법여부에 따라 합법, 비합법, 반합법통일전선 ⑥내용에 따라 반미구국전선, 반파쇼민주연합전선, 조국통일전선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류되고 있다. 차주완,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변화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48.

IV. 개성공단 실무회담⁶⁶⁾과 협상모델 적용

1.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 적용

김정은시대에 실시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도 로동신문을 분석한 결과 군사협상과 유사하게 협상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항일유격대식 군사협상 모델이 일반 협상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협상 분야에서도 항일유격대식 군사협상모델이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면 향후에는 경제분야 협상시에 사전 북한 협상모델의 특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협상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단계별로 나타나고 있는 협상전술을 항일유격대식 협상전술과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 표 <4-1>과 같다.

<표4-1> 항일유격대식 협상전술과 김정은시대 협상전술 비교(제4, 6차 개성공단 실무회담⁶⁷⁾)

단계	항일유격대식 협상전술	김정은 시대 개성공단 실무회담(4차, 6차회담)		
협상준비단계	회담 개최에 적극적인 입장표명, 분위기 조성	4차	합의서 초안제시	회담 개최에 적극적인 입장표명 ⁶⁸⁾
		6차	개성공단 발전 김정일 유혼 관련 8월 5일 '누리에 빛나는 선군대양' 제10부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시어'를 방영	
	유리한 협상 환경 조성	4차	정치적, 군사적 행위 일체 하지 않음.	유리한 협상 환경 조성
		6차	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6·15공동선언 업적 보도	
	사전 유리한 협상의제 탐색	4차	공업지구의 안정적 운영	사전 유리한 협상의제 탐색
		6차	개성공단 정상운영, 신변안전 및 3통 문제,	
협상초기단계	주도권 장악시도	4차	북측 차원의 성의 있는 실천적인 제안	주도권 장악시도
		6차	3통 문제 군사실무회담 제의, 공동위원회 구성, 합의서 서명 등	
	협상원칙 제시	4차	개성공단 정상화 원칙	협상원칙 제시
		6차	개성공단 정상화 및 중단의 근본원인 제기	
협상중간단계	협상 상대방과 논쟁 및 압박	4차	일장적인 재발방지 대책 담보, 인위적인 난관조성	협상 상대방과 논쟁 및 압박
		6차	남측 주장에 대한 화답회피, 기존입장 관철에 주력, 북한군 재배치	

66)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은 2013년 4월 3일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및 최고 존엄 모욕 등을 문제로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출경 차단조치로 촉발된 가동 중단사태 이후 정부는 7월 4일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의하여 남북은 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서 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후 7월 6~7일에 1차 회담에서 재가동 원칙적 합의를 실시한 후 8월 14일 7차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5개항 남북합의서 채택 및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여 개성공단사태를 해결하게 되었다.

67) 회담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측의 협상전술을 분석하고자 7차에 걸쳐 실시된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중 가장 논란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4차와 6차 회담 위주로 협상전술을 분석하였다. 특히 6차 회담은 결렬되어 북측이 남측 기자실에서 합의 없이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로동신문』, 2013년 7월 18일 4면, 2013년 7월 26일 4면 참조

단계	항일유격대식 협상전술	김정은 시대 개성공단 실무회담(4차, 6차회담)		
	협상의제 변경 및 요구	4차	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존 입장만 되풀이 설명	협상의제 변경 및 요구
		6차	가동중단의 책임, 피해보상 등 남측 입장 강변에 대한 의제 중단	
협상 최종 / 이행 단계	회담결렬 책임전가, 합의사항 일방적 거부, 지연조치	4차	남측의 부당한 주장 및 불성실한 태도	회담결렬 책임전가, 합의사항 일방적 거부, 지연조치
		6차	성의 있는 노력 외면, 회담결렬위기 남측에 책임전가	
	합의사항 이행 소극적 및 미조치	4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대해 남북간 인식 공유 외에는 남측 요구사항 협상진척 미흡	합의사항 이행 소극적 및 미조치
		6차	회담결렬 관련 남측기자실 기자회견 및 회담관련 문건 공개	

2. 경제협력 실천방안 시사점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에 군사협상모델인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을 적용한 결과 일반 경제분야 협상에서도 협상모델 적용이 가능함⁶⁹⁾을 알 수 있었다. 군사협상분야 외에 경제분야 협상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이제부터라도 경제분야 협상시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협상전략과 전술의 본질을 이해하였다면 보다 유연하게 협상에 대처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에 부합하는 진화하는 대북정책의 추진원칙을 준수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우리측은 기본적으로 재발방지대책, 출입인원 신변보장, 3통 문제,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발전적 정상화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 등의 기본의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더 큰 협상의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을 통하여 우리측이 활용할 수 있는 주도권 장악 및 협상문화 요소의 통일전선의 적용 가능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 발표된 김정은 첫 공식 노작인 4·6 담화에 나타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이 관건적인 과제였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실리추구와 관련된 사항으로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행동방식인 주도권 장악과 협상문화의 핵심요소인 통일전선전술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다. 즉 협상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경제적인 협상의제를 당근으로 대비

68) 북한측은 개성공단 실무회담 전에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대결정책의 철회를 요구”, “대화 분위기 조성은 중요한 현실적 문제”를 통하여 회담개최에 적극적인 입장표명 등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로동신문』, 2013년 6월 8일, 6월 12일자 참조

69)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전통은 현재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분야에 사상적 기반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김광운은 “김일성 지도체계는 일제하 항일무장투쟁으로부터 배양되어 김일성의 정권장악과 함께 그 원형이 성립되었다. 김일성 지도체계를 만들어낸 항일유격대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북한의 당·정권기관·군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리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서울: 선인, 2003), p. 749.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김일성과 김정일이 추구하였던 통일전선 적용방식으로 그들이 북한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이며 체면을 지켜줄 수 있는 사항이다. 나아가 우리측의 효율적인 협상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남북회담 본부의 회담기획 및 운영부서뿐만 아니라 회담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정 통제하는 정책의 핵심 브레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정책 마인드이다. 또한 협상단계별 대응방식에 대한 매뉴얼 작성을 북한의 협상모델에 의거 단계별로 분석 및 작성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VI. 결 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남북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을 통하여 김정일시대 북한의 군사협상 행태가 북한의 전략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항일유격대 시절의 담판 틀과 동일하다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즉,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협상 행태가 김정일시대의 군사협상 행태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북한 전략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나타난 담판사례들 가운데 형식과 가치가 있는, 즉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오의성과의 담판’과 실패 사례인 ‘고이허와의 담판’을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원형으로 제시하였다. 군사협상 행태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 도출 과정에서 나타난 협상관과 협상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북한의 군사정책과 협상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김정일시대의 군사회담 유형별로 세부적인 협상전술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도출된 김정일시대 군사협상 전술이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협상전술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군사협상 사례분석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최근의 김정은 시대에 실시된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중 4, 6차 회담분석을 통하여 경제분야 협상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노동신문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군사협상 및 경제협상의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주요한 특징적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첫째, 북한의 군사협상 행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별 군사협상 전략에는 북한의 전략문화가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협상전략 하나하나에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협상 행태가 반영되어 협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북한의 협상관과 협상문화는 항일유격대 시절의 담판틀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김정일시대 군사협상 행태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김정일시대 북한의 군사 협상전술은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협상전술과 동일하게 진행되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특히 군사협상의 준비단계, 초기단계, 중간단계, 최종 및 이행단계 등에서 협상단계별로 나타나고 있는 협상전술이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인 ‘오의 성과의 담판’, ‘고이허와의 담판’을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전술은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주요 특징은 ① 체제유지를 위한 벼랑 끝 전략 ② 동조세력 확보를 위한 통일전선전술 ③ 협상승리를 위한 행동방식으로 협상의 주도권 장악하기, 사실왜곡과 뒤집어씌우기, 체면살리기 등 3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다섯째, 항일유격대식 군사협상 모델은 군사협상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분야 협상에서도 유사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김정일시대의 군사협상은 항일유격대 시절의 담판틀 범주 내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사 및 경제협상 행태 또한 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요한 특징을 통해서 향후 남북협상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정책결정자들은 기존의 서구식 협상이론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협상모델을 숙지한 가운데 협상을 준비하여야 한다. 정책결정권자들은 서구의 자연스러운 협상모델과 북한의 협상모델을 반드시 사전에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냉엄한 현실에서 무시하고 기피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나아가 협상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실리를 취할 수 있는 협상의 큰틀을 유지하면서 남북협상의 정수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유환, 『로동신문을 통해본 북한 변화』, 선인, 2006.
 강성운 엮음, 『김정일과 북한의 정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선인, 2010.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선인, 2005.
 스코트 스나이더, 안진환·이재봉 역, 『벼랑끝 협상』, 청년정신, 2003.
 이상철, 『북방한계선 기원·위기·사수』, 선인, 2012.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역사비평사, 1995.

- 척 다운스 저, 송승종 옮김, 『북한 협상전략』, 한울아카데미, 1999.
- 고유환, “벼랑끝 협상전술과 북한의 저의”, 『월간 북한』제294호, 1996.
- 김용현,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 문성묵,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현황과 향후 과제 :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중심으로”, 『한반도 군비통제』, 2005.
- 박순성, “김정일시대(1994-2004) 북한경제정책의 변화와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8권1호, 2004.
- 서 훈, “북한의 선군외교 연구-약소국의 대미 강압외교 관점에서”,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송중환, “북한의 협상행태에 관한 연구 : 남북한 당국간 대화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 이미숙, “남북한 군사협상과정의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 『군사』제70호, 군사편찬연구소, 2009.
- 이성춘, “김정일시대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행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 _____, “김정일시대의 남북 군사협상 행태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제15권 2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2.
- 임동원, “남북 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6.
- 정성장, “북한 핵실험 : 북한의 의도와 입장”,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6.
- 조화성, “북한의 전략문화와 핵 협상전략에 관한 경험적 연구”, 『국제정치논총』제49집 5호, 2009.
- 황일도, “북한의 전략문화와 군사행태-핵무기개발, 재래식전력 배치, 연평도 포격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1~8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1998
-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리론』, 평양출판사, 2003.
- 김일성, “전투에서 주도권 장악”, 『김일성 저작집』제6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정전담판에 대한 북조선의 입장”, 『김일성 저작집』제7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 『김일성 저작집』12권.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1.
-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근로자』3호, 1985년.
- 천영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우는것은 우리제도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문제”, 『경제연구』1(루계11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 최용남,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의 철저한 관철은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2(루계147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 Charles Turner Joy, *How Communists Negotiate* (New York : Macmillan Company, 1955), 김홍열 역,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 Chuck Downs, *Over the Line: North Korea's Negotiating Strategy*, Washington, D.C: The AEI Press, 1999.
-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Second Edition, ISBN: 0-321-01349-2 by Allison, Graham T.; Zelikow, Philip, Published by Pearson Education, Inc, Publishing as Longman. 김태현 역, 『결정의 엡센스』, 모음북스, 2005.
- Jack Snyder, “The Soviet strategic culture: Implications for Nuclear Options”, Santa Monia: Rand Corporation Report R-2154-AF, September, 1977.

ABSTRACT

Study on the Economic Co-operation action by analyzing the North Korea' s Military Negotiations - Focusing on Inter-Korean Military Talks and working level talks abou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

Sung-Choon Lee*

When it comes to the current inter-Korean relationship, the two Koreas are in the step of core practical negotiation on exchanges and cooperation away from deadlock so far.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have more and frequent meetings in the future. Therefore, now is the time the South Korea needed to come up with systematic countermeasures because there is nothing more important and giving more impact on our society than the matter of North Korea. As the purpose of social science lies with the explanation and prediction of the social phenomena in the society, it is considered to be meaningful to analyze the representative military negotiations such as the defense ministry-level talks, general-level talks, and working-level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where the participants from South Korea consisting of the military representatives discussed with their counterparts of North Korea since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in Korea on July 27, 1953. This study analyzes and evaluates the behaviors of North Korea's military negotiations with the South Korea in the Kim Jong-il era on the overall basis. In particular, the research tries to prove that the behaviors of military negotiations under Kim Jeong-il regime were made in the frame of the negotiation model by analyzing many negotiations presented in 'With Century', Kim Il Sung's Memoirs under his anti-Japan-guerilla era and suggesting the analysis frame of anti-Japan-guerilla style negotiation mode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proof, the study looks at carefully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anti-Japan guerrilla-type negotiation.

Key Words : inter-Korean defense ministry-level talks, inter-Korean general-level talks, inter-Korean working-level talks, anti-Japan-guerilla style negotiation model, inter-Korean working-level talks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Dept. of special Warfare Professor